

# 조심 또 조심...골프장 발길 '뚝' 꽃배달 '울상'

##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 표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초중고 및 대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광범위한데다 '받는 쪽'뿐만 아니라 '주는 쪽'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되면서 사실상 국민 전체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법 시행 후 첫 주말이자 연휴였던 지난 1~3일 광주·전남 곳곳의 풍경을 보면 우리 사회가 청렴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첫 사례로 적발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불러온 일시적 현상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한 의미가 전파되고 있다.

당장 접대와 청탁의 무대로 여겨졌던 골프장 업계는 매출 감소로 울상 지으며 시행 초기 '일시적 현상'이길 바라는 분위기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광주 근교의 A골프장은 이번 연휴기간 추가 할인 혜택까지 안해줬지만 입장객 감소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70개 팀이 예약해 골프장이 꽉 들어차지만

## 회환·조화 등 매출 줄어

### 엄한 잣대 교육계 희비 속

### 클린 사회 진입 큰 기대

이번 연휴기간에는 하루 평균 140~150개 팀이 라운딩하는 선에 그쳤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골프장으로서 초가를 성수기인데다 개천절 연휴까지 겹쳐 어느 정도 기대는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역 골프장 전체가 예약을 감소로 큰 걱정"이라며 "골프장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라면서도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일식집과 한정식집 등 고급요리 전문점도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평소라면 공무원, 공기업 직원, 언론계 종사자,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 북적였을 광주지역 유명 일식집, 한정식집은 한산한 형편이다. 적게는 10~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웃도는 금액이 청구되더라도 호기롭게 법인카드를 내밀던 손님은 찾아보기 힘들고 매장이 북비더러도 1~2

만원짜리 식사 손님이 대다수여서 매출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게 가게 주인들의 전언이다.

광주에 복수의 매장을 운영 중인 B일식집 관계자는 "시행 후 일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 식사요금이 단순 식사가 아닌 고가의 음식을 메뉴로 한 점대 상품이다 보니 공무원, 기업체관계자들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화나 화환 등을 장례식장, 예식장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가격 인하 등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승진자의 사무실에 있어야 이마까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움츠러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 북구에서 꽃배달 가게를 운영하는 C업체 관계자는 "화환, 조화도 10만원짜리에서 5만원짜리로 주력 상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던 교육 분야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 잘 발달란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려고 커피 한 잔 드리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 이제는 손 편지를 써서 성의를 보여야하나"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하지만, 4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카페 광수방(광주삼수방)의 주말과 휴일 대화방을 들여다보면, 학부모들은 "항상 명절이나 수확여행, 공개수업 때면 마음이 심란했던 게 사실이다. 주고 받는 문화가 사라지면 아무래도 교실에서의 특권이나 특혜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첫 휴일까지 적어도 내게는 이런저런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온 건 제로다. 우리 사회의 식 수준이 송두리째 바뀌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병원이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 부탁을 통해 치료나 진료의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었지만 은근히 신경 쓰였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 표징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 표징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 표징

## '김용구 전 자문관 비리' 관련 공무원 10여명 소환

### 광주시 5개 대형사업 부당 개입 여부 조사

김용구(63)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자문관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시 5개 대형사업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소환된 공무원만 10명이 넘는다.

3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30일 광주시 사업부서 5~7급 공무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광주시가 추진한 5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건설사 등 4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광주시가 발주한 5개 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김씨의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김철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김씨가 행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절차의 불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광주시 환경생태국을 비롯해 7개 실·국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

색했다. 지난달 8일 정책자문관실에 이어 광주시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이었다.

김철은 김씨가 201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남지역 중소 건설업체인 S건설로부터 1억9800여만 원을 받고 광급공사 수주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철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또 다른 건설사와 은행 등 3개 업체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자문료를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 해당 업체와 광주시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김철은 김씨가 4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광주시 5개 대형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컨설팅 이력과 압수수색 부서를 조합해 보면 '삼각동 송전탑 지중화', '마리동 탄약고 이전',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금교 선정' 등으로 추정된다. 당초 수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운정동 태양광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2011년 이후 데이트폭력 2133건

### 박남춘 의원 국감 자료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범죄가 총 2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인 관계에 의한 간간이나 강제추행도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애인관계에 의해 발생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가 광주에서 1209건, 전남에서 924건 발생했다.

광주의 경우 폭행 782건, 상해 427건 이었고, 전남은 폭행 436건, 상해 48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에서는 지난해 상해사건 범죄가 1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간헐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했다"며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성매매 여성 맘에 안든다"며 강도짓 벌인 10대들



○"여관 측이 알선한 성매매 여성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며 여

관 주인에게 화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강도짓을 벌인 10대 3명이 구속될 처지.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 관계인 정모(19)군 등 3명은 지난 2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 송정역 인근의 한 여관에서 업주 김모(여·74)씨의 목덜미를 흔들고 양손으로 3~4차례 뺨

을 때려 넘어뜨린 후 옷에 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경찰은 정식 일당 조사 과정에서 "여관 주인이 불러 준 성매매 여성들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화대 환불을 저질렀다"는 진술까지 확보, 여관 주인과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광주 김영란법 신고 4건

### 단순 상담...출동요건 해당안돼

김영란법 시행 6일동안 광주에서 총 4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은 한 건의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0시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지난달 28일 1건, 30일 3건 등 총 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단순 상담 전화여서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연결했다. 현재까지 전남경찰청에는 신고 전화가 없는 상태다.

첫 신고는 시행 첫 날 오후에 접수됐다. 내용은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익명의 112신고였고, 경찰은 정부콜센터에 상담연결을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에 타 지역에서 접수된 '교수 캔커피 사건'의 모방 신고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이 신고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경찰이 받은 전화는 모두 단순 상담 등에 해당하고 현장에 출동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 신고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단기 4349년 개천대제

단기 4349년 개천절인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단성전에서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정신을 기리기 위한 개천대제가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법원 국조송모회원들이 단군의 초상에 제를 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국과수, 3명 사망 중국 어선 화재 두차례 감식

### 섬광탄 연관성 집중 조사

불법조업 단속 중 화재로 중국인 선원 3명이 숨진 사고(광주일보 9월30일자 6면)와 관련, 국과수가 이틀에 걸쳐 감식을 하는 등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1, 2차에 걸쳐 중국 어선 소감어 04012호(180t)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고 화재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3주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분석은 해경 대원들이 투척한 섬광탄이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소감어호 선장 양모(41)씨에 대

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소감어호 선원들을 상대로 화재 발생 전후상황을 조사 중이다. 선원들이 조타실 등 문을 걸어 잠근 이유, 불이 날 당시 선원들의 선내 위치, 화재 당시 상황 등 관련 진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전 9시45분께 신안군 흥도 해상을 항해하던 소감어호에서 해경 검문검색 중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지고 14명은 구조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첨단상성전자 정문 앞)

**첨단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1층 (상가) 120평  
2층~7층 오피스 56개  
8층 (41평) 스카이라운지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 (60대)  
※ 분할 등기 가능 ※

※ 보증금 2억 월수익 3,000만 ※

▶ 매가 38억 (용 25억 가능)

**첨단 소형 연구실(사무실) 임대**

◆ 입주 예정일 11월 15일 ◆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 보 500만 / 월 35만

010-7384-7800

### 평택 토지 전문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대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미군기지 - 5만평) (평택항) (현대지구 70만평)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되 후회 없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승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경기도 화성시

정남 IC 5분 !!  
평 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정부지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10억투자 10억 순수익  
▶ 매가 10억 (평당 56만)

※ 토지 2억 ~ 30억 까지 다양 확보 ※

경기도 화성시 A.P.T 투자 가장 저렴하게 드립니다  
※ 실투자 1천 만원  
A.P.T 34평 ▶ 매가 2억 4천만원 (용 2억 3천 원 70만)

010-6670-9800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을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① 토 151평, 건 43평  
②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물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앞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앞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

□ 전남 영광 광명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062-527-7600

###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① 북구 용봉동 (근린시설)  
토 179평, 건 155평  
용봉동 신동아 아파트 인근, 식당건물  
▶ 감정가 7억4천 → 최저가 7억4천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9평  
신가중 부근  
룸 8개 - 월수익 250만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인근,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4억9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장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전 경험자 우대, 환영

010-6834-4800